

임신 중 피부질환에 대한 치험 2례

*동서한방병원 한방부인과, **동서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김경혜*, 정아롱*, 정은아*, 박수은**

ABSTRACT

Two cases of dermatitis patients during pregnancy

Kyeong-hye Kim*, A-rong Jung*, Eun-a Jung*, Soo-eun Park**

*Dept. of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Dongseo Oriental Medical Hospital

**Dept. of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Dongseo Oriental Medical Hospital

Purpose: Generally dermatitis is treated by corticosteroids, antihistamines ect. but the use of these drugs may affect pregnant women adversely. In this case Oriental medical therapy can be very usef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clinical management of dermatitis patients during pregnancy by oriental medicine including Hwa-acupuncture and herbal-combined extraction.

Methods: We experienced two cases of dermatitis patient during pregnancy. In the beginning of treatment, they had severe itching, burning sensation, bulla, papule. We teated them with Hwa-acupuncture, herbal-combined extraction.

Results: After quite short oriental treatment including Hwa-acupuncture and herbal-combined extraction, the symptoms of patients are remarkable alleviated.

Conclusion: We think that many case of dermatitis during pregnancy can be managed effectively by Hwa-acupuncture and herbal-combined extraction. If we make more studies about disease under pregnancy condition, it will bring the high satisfaction of patient and the elevation of treatment rate.

Key Words: pregnancy, dermatitis, pruritus, Hwa-acupuncture, herbal-combined extraction

I. 緒 論

임신은 최종 월경일로부터 약 280일가량의 기간동안 신체에 내분비, 대사, 면역 등 여러 방면으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임신기간에 발생하여 임신과 관계가 있는 질병을 “妊娠病” 혹은 “胎前病”이라고 하는데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妊娠病으로는 妊娠惡阻, 妊娠腹痛, 胎漏, 胎動不安, 子宮外妊娠, 胞狀奇胎, 胎位不長, 妊娠心煩, 妊娠眩暈, 子癩, 妊娠咳嗽, 妊娠小便不通, 妊娠大便難, 妊娠泄瀉, 妊娠身痒, 妊娠身痛, 妊娠腰痛 등이 있다¹⁾. 그 가운데 피부 변화도 흔히 나타나는데 피부종양이나 특이한 피부질환이 아니고는 생리적인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병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권²⁾ 등은 임신 중의 피부 변화를 관찰한 결과 색소 침착, 手掌部 紅斑, 다모증, 임신선조 등의 다양한 변화가 빈번히 관찰된다고 하였다. 윤³⁾은 임신 중의 특수한 피부상태를 임신성 소양증, 임신소양성 구진과 반점, 임신성 양진, 임신성 천포창, 포진상 농가진, 자가면역 황체호르몬 피부염 등에 대해 언급하고, 태아의 안녕을 저해하는 병변들도 있음을 유념하고 치료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하였다.

임신 중 피부질환의 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지만 임신부에 있어서 약물 사용과 치료에는 한계가 있어 치료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저자는 임신 중 발생한 소양성 피부발진과 手足庖疹 환자 2례를 五行和鍼法을 기본으로 하고 韓藥治療, 外治法 등

을 이용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II. 證 例

1. 증 례 1

- 1) 성 명 : 이 ○ ○ (F/32세)
- 2) 주소증
 - ① 皮膚發疹癢痒(전신적으로 發赤, 發疹, 癢痒感 甚하여 不眠)
 - ② 濕疹(肘·膝關節 部位 이하에 국한, 전체적으로 붉으면서 濕潤한 양상)
- 3) 발병일 : 2006년 2월 20일경
- 4) 치료기간 : 2006년 2월 27일부터 2006년 4월 27일까지 19회 외래치료
- 5) 과거력 : 濕疹 - 1999년경 발생 이후 local 피부과에서 간헐적 외용제 치료받음
- 6) 가족력 : 없음
- 7) 월경력 : 주기 28일 일정, 기간 3-4일, 量 普通, 塊(+), 痛(-), PMS-憂鬱, 浮腫
- 8) 산과력 : 0-0-0-0
- 9) 현병력 : 상기 환자는 마른 체형으로 32세의 임신 12주째 산모로, 임신 전 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stress가 심하여 이로 인한 위장장애, 체중 저하가 있었고 임신 무렵 직장을 그만 둔 상태였음. 임신 이후부터 평소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濕疹이 肘·膝關節 이하로 심해지더니 임신 11주째부터는 얼굴, 목, 腹部로 붉게 발진이 생기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져 不眠症까지 있는 상

태였음. local 피부과에서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보고 외용제를 처방받았는데 기존의 濕疹은 약간의 차도를 보였으나 임신 이후

생긴 피부 발진은 차도가 없어 본원에 내원함.

10) 望聞問切

Table 1. 증례 1의 望聞問切

食慾	평소 少食, 채식 기호 → 임신 후 육류 즐겨 2-3회/주	消化	자각하는 불편감 없음
飲	적게 마시는 편, 喜冷飲	汗	少
大便	1회/2日, 임신 후 硬便 경향	小便	頻數(임신 후 1-2시간에 1회)
寒熱	惡寒(素), 최근 上熱感, 口渴	手足	冷
睡眠	入眠難 淺眠 頻覺	腹診	臍中部, 心下部 壓痛 甚함
脈	弦細	舌	舌質紅 無苔

11) 치 료

① 침 치료: 火實水虛

左: 大敦 補, 太白 瀉, 陰谷 補, 少府 瀉
右: 曲池 補, 解谿 補, 內庭 瀉

환자의 脈을 比較脈診해 본 결과 五行和鍼法의 火實水虛人으로 진단하였다. 火實水虛人의 경우 火土(心脾)는 實하고, 水木(腎肝)은 虛한 구조식이 나오게 된다. 望聞問切, 舌苔의 결과도 心火旺盛, 腎陰虛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

런 脈象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좌측에는 火實水虛人의 基本穴인 大敦(肝經의 木穴) 補, 太白(脾經의 土穴) 瀉, 陰谷(腎經의 水穴) 補, 少府(心經의 火穴) 瀉를 하였다. 우측에는 曲池(大腸經의 土穴) 補, 解谿(胃經의 火穴) 補, 內庭(胃經의 水穴) 瀉를 하였다. 補瀉法은 迎隨補瀉를 기본으로 하였다.

② 약 처방 및 치료경과

Table 2. 증례 1의 치료와 치료기간동안 증상의 변화

날 짜	2/27	28	3/2	3	4	6	8	10	14	17	20	23	26	27	29	4/3	6	11	18	27
烏貝散*	3包/日													2包/日		1包				
香砂平胃散**			3包/日		1包/日															
연고***	수 회/日															1-2회/日				
침치료	[침 치료 기록 없음]																			
피부발진소양	vas10	8	8	5	5	5	5	5	3	3	3	3	3	1	1	1	1	0	0	0
수족습진	vas10	7	7	5	5	5	5	5	3	3	3	3	3	3	5	6	5	2	1	1

*烏貝散(복합Ex.): 烏賊骨 貝母 白芫

**香砂平胃散(복합Ex.): 蒼朮 陳皮 香附子 枳實 藿香 厚朴 砂仁 木香 甘草 生薑

***연고: 비스테로이드성(self로 하루 수회 塗布)-습진 치료제로 피부과에서 처방받음

香砂平胃散 처방 후 소화력도 평소보다 좋아지고 야간 소양감도 호전되는 가운데 3/4부터 3/6까지 실사 1일 1회하여

약 양을 하루 1포로 줄였고 3/10이후로는 침 치료만으로도 지속적인 호전을 보였다. 3/23경부터 연고 도포를 중단한

후에는 손가락, 종아리 부위 습진이 심해지며 삼출물이 생겨 4/6부터 다시 하루 1-2회 도포하기 시작하였고 4/20경부터는 수일에 1회로 횟수가 줄어들었다. 임신 후 생겼던 피부발진소양은 모두 없어졌고 기존의 습진만 미약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4/27 치료를 종결하게 되었다.

2. 증례 2

- 1) 성명 : 정 ○ ○ (F/32세)
- 2) 주소증
 - ① 手足庖疹
 - ② 眩暈
 - ③ 便秘
- 3) 발병일 : 2005년 4월 18일경
- 4) 치료기간 : 2005년 5월 2일부터 2005년 5월 24일까지 8회 외래치

료

- 5) 과거력 : 없음
- 6) 가족력 : 없음
- 7) 월경력 : 주기 30일 일정, 기간 7일, 量 普通, 塊(-), 痛(+), PMS(-)
- 8) 산과력 : 0-0-0-0
- 9) 현병력 : 상기 환자는 비만한 체형의 32세 여환으로 2005년 5월 2일 내원 당시 임신 11주째였음. 임신 8주부터 증상 발생하였는데 手足에 水疱性 發疹이 있으면서 소양감과 통증이 있고 local 피부과 및 산부인과에서 임신성이므로 특별한 처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참다가 본원에 내원하심.
- 10) 望聞問切

Table 3. 증례 2의 望聞問切

食慾	평소 양호하나 妊娠惡阻로 식욕저하	消化	평소 양호, 妊娠惡阻로 心下部 불편감
飲	喜冷飲	汗	少
大便	1回/7日(素, 임신 후 尤甚)	小便	정상
寒熱	惡寒(素)	手足	겨울철 건조해서 갈라짐
睡眠	정상	腹診	心下部 壓痛 甚함
脈	弦滑	舌	舌淡紅胖大 薄白苔

11) 치료

- ① 침 치료: 木實金虛
左: 陰谷 補, 少府 瀉, 勞宮 瀉
右: 臨泣 補, 商陽 瀉

환자의 脈을 比較脈診해 본 결과 五行和鍼法의 木實金虛人으로 진단하였다. 木實金虛人의 경우 木火(肝心)는 實하고, 金水(肺腎)은 虛한 구조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좌측에는 木實金虛人의 基本穴인 陰谷(腎經의 水穴) 補, 少府(心經의 火穴) 瀉를, 우측에는 臨泣(膽經의 木穴) 補, 商陽(大腸經의 金穴) 瀉를 하였다. 少府의 輔助穴로서 勞宮(心包經의 火穴) 瀉를 하였다.

② 처방 및 치료경과

Table 4. 증례 2의 치료와 치료기간동안 증상의 변화

날 짜	5/2	5/3	5/6	5/9	5/12	5/17	5/20	5/24
烏貝散			2포/일				1포/일	
大黃末外用 ^{*)}			3포/일			2포/일		1포/일
침치료								
左手疱疹	vas 10	10	5	3	1	1	2	0
右手疱疹	vas 10	10	8	5	1	1	2	1
足部疱疹	vas 10	10	8	7	5	2	1	0

^{*)}烏貝散(복합Ex.): 烏賊骨 貝母 白芨

^{**)}大黃末 外用(Ex.): 大黃을 粉末로 만든 것으로 少量의 물에 개어 患部에 塗布하도록 함.

疱疹 樣相은 Table 4. 처럼 호전되었고, 소양감과 통증은 5/9이후 소실되었다. 꾸준한 호전을 보이고 있어 5/17 내원 시 烏貝散 복용을 중단하였는데 疱疹이 다시 盛해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호소하시어 용량을 줄여 다시 복용케 하였다.

Ⅲ. 考 察

濕疹은 滲出하기 쉽고 自覺적으로 癢痒感이 있으며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많고 반복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흔히 볼 수 있는 알러지성 피부병으로, 한의학에서는 濕熱型, 血虛型, 脾虛型으로 구분하여 치료할 수 있다⁴⁾.

癢痒은 風, 濕, 熱, 虫의 邪氣가 피부와 근육 표면을 침입하여 피부와 근육간 氣血이 不和하여 발생하거나 血虛하여 生風化燥하고 피부와 근육을 濡養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風邪가 피부에 침습하여 그 毒性이 盛하고 瘡面이 건조해짐으로써 생기는 乾燥性 癢痒症과 濕邪가 침습하여 그것이 오랫동안 몸 안에 머물러서 熱로 변화되어 발생하는 濕性 癢痒症으로 나눌 수 있다⁵⁾. 상기 증례 중 증례 1은 素症으로 가지고 있던 濕疹

과 임신 후 발생한 癢痒發疹이 주증상이었고 증례 2는 水疱性 發疹으로서 濕性 癢痒症에 속하는 증례라고 할 수 있다.

임신소양성 구진 및 판(Puritic Urticarial Papules and Plaques of Pregnancy; PUPPP)은 임신 제 3분기에 주로 발생하며 심한 소양감을 느끼는 흥반성 혹은 팽진성 구진이 복부와 둔부, 사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통 1-2mm의 작은 구진과 흥반성 팽진양 구진이 나타나며 환자의 약 44%에서 소수포(Vesicles)가 나타나며 수포(Bullous lesion)는 나타나지 않는다⁶⁾. 발병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과민반응과 임신에 의하여 변화되는 호르몬이 관여한다는 설이 있다⁷⁾. 치료는 대개 피부연화제나 항히스타민제, 국소적 스테로이드 등을 外用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신적 스테로이드 복용을 꾀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분만을 시행하기도 하며, 예후는 대부분 양성경과를 취하고 다음 임신시 재발하지 않으며 태아에도 특별한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나 산모와 태아에서 동시에 같은 병소를 보이기도 한다⁸⁾.

증례 1의 환자는 평소 수족부위 濕疹으로 local피부과의원에서 간헐적으로 의

용제 치료를 하던 상태에서 임신 이후 濕疹이 肘·膝關節 部位까지 확대되면서 심해지고 임신 11주째부터는 濕疹과는 다른 양상으로 체간부위에 극심한 소양감을 동반한 피부발진이 시작되었다. 임신 11주부터 시작된 피부발진은 직경이 1mm가량이고 顔面部, 頸部, 腹部로 足陽明胃經이 지나는 부위로 형성되었고, 소양감이 심해 굵으면 더욱 붉게 심해지고 진물은 없었으며 不眠症까지 있는 상태였다.

환자의 치료혈은 五行和鍼法에 따라 比較脈診을 통해 진단하고 選穴하였다. 五行和鍼法은 백단 송재훈 선생이 內經 및 難經 75難, 69難의 陰陽의 盛衰 및 五行의 相生 相剋關係를 集大成하여 만든 鍼法으로, 脈診에서는 難經의 寸口脈法을 사용하는데 左脈은 心 肝 腎, 右脈은 肺 脾 命門으로 나누고 75難의 相剋이론에 따라 그 虛實을 比較하여 木實金虛 火實水虛 土實木虛 金實火虛 水實土虛의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⁹⁾.

〈難經〉75難에서 '經言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金木水火土, 當更相平.....東方肝也, 則知肝實, 西方肺也, 則知肺虛. 瀉南方火, 補北方水.....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라고 하였는데¹⁰⁾, 東方實 西方虛는 나타나는 증상이고 瀉南方 補北方은 치료방법이다. 五行은 마땅히 평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東方이 實하고 西方이 虛한 환자가 있다면(肝實 肺虛: 木實 金虛) 이 환자에게는 瀉南方 補北方(瀉心 補腎: 瀉火 補水)을 하라고 하였다. 이 상태에서 子에 속하는 臟(心火)은 그 母臟의 臟氣(肝木)를 더욱 實하게 할 수 있으며, 母에 속하는 臟(腎水)은 子에 해당하는 臟

(肝木)의 氣를 더욱 虛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南方의 心火를 瀉하고, 北方의 腎水를 補하면 肝實肺虛의 證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치료법을 통하여 木實金虛의 상태에서는 火가 實하고 水가 虛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본 환자는 五行和鍼法에 따라 比較脈診을 하여 火實水虛人으로 진단할 수 있었는데 좌우의 寸脈인 心脈과 肺脈을 比較하여 心脈이 크고 肺脈이 작고, 關脈의 肝脈과 脾脈을 比較하여 脾脈이 크고 肝脈이 작아 火實水虛人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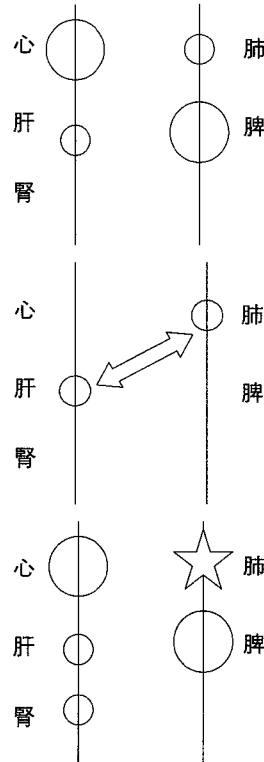


Fig. 1. 火實水虛人의 맥진도

좌측에는 火實水虛人의 基本穴인 大敦(肝經의 木穴) 補, 太白(脾經의 土穴) 瀉, 陰谷(腎經의 水穴) 補, 少府(心經의 火穴) 瀉를 하였다. 우측에는 曲池(大腸經의 土穴) 補, 解谿(胃經의 火穴) 補,

內庭(胃經의 水穴) 瀉를 하였다. 曲池는 手陽明大腸經의 土穴로서 祛風解表, 清熱利濕, 調和營血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麻疹, 알러지질환, 피부병 등에 쓰이는데¹¹⁾, 手陽明大腸經은 大腸에 屬하고 肺에 絡하여 肺主皮毛하는 性質을 이용하여 임상에서 피부질환에 多用한다. 또한 手陽明大腸經은 胃와 직접 관련이 있는데, 解谿와 內庭은 足陽明胃經의 穴로 顔面部에서부터 頸部, 腹部에 이르기까지 피부발진의 부위가 足陽明經의 流走와 흡사하여 운용하게 되었다. 마른 체형의 환자는 '血虛血熱'한 상태를 本證으로, 食積으로 인한 濕濁을 表證으로 진단하였다. 刺鍼한 穴 가운데 大敦 補, 陰谷 補는 補血의, 少府 瀉는 清熱의, 太白 瀉는 祛濕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약처방은 보험엑스제인 烏貝散으로 시작하였는데 烏貝散은 烏賊骨 貝母 白芨 세 가지 약물로 구성된다. 烏貝散은 주로 胃酸過多, 胃潰瘍, 嘈雜, 吞酸症에 쓰이는 처방¹²⁾으로, 이 가운데 主藥인 烏賊骨은 한의학에서 海螵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오징어과 동물 無針烏鰂 또는 金烏鰂의 內殼으로, 濕을 제거하고 신물을 吐하는 증상을 멎게 하며 止血하고 瘡을 수렴하는 효능이 있다¹³⁾고 하였다. 白芨은 澁味가 있어 收斂止血, 消腫生肌하는 작용이 있어 烏賊骨, 貝母 등과 배합하여 胃出血, 外傷出血, 瘡瘍腫毒, 皮膚皸裂 등에 쓰이는 약물이다¹⁴⁾. 사람의 소화관은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공간으로 항상 외부로부터 유입된 공기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이다¹⁵⁾. 몸속에 있지만 외부와 소통된다는 점에서 소화관의 점막은 신체의 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장의 염증성 질환

에 사용되는 烏貝散을 피부질환 초기치료에서 발진과 습진을 거두어들이려는 [澁] 목적으로 침 치료와 함께 3일 투여하였는데 다소 호전반응은 보이고 있으나 반응이 신속하지 않았다. 환자는 임신 후 식욕이 증가하여 평소보다 자주(2-3회/주) 많은 양의 육류를 섭취하였고, 자각적인 불편감은 없었으나 心下部 壓痛이 甚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처방을 香砂平胃散(보험 엑스제)으로 바꾸었다. 이후 소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야간에 깨지 않고 숙면하며 덜 굶으면서 잔다고 하시면서 소양감도 이전보다 더 빠른 호전이 있었다. 香砂平胃散은 平胃散에 香附子 枳實 藿香 砂仁 木香을 加한 처방으로 기본방인 平胃散은 濕濁을 化하여 氣를 和平하게 하고 脾胃를 健强하게 회복시키며 胃氣를 和降케하는 약제이다. 그러나 발진과 소양감은 호전을 보이는 가운데 香砂平胃散 투여 후 환자는 변이 묽어져 1일 1회 水樣性 泄瀉를 하여 香砂平胃散 투여를 1일 1/2포로 줄어다가 3/14부터는 침 치료만 하기 시작하였다. 환자가 더 이상의 한약 투여를 원하지 않아 湯劑韓藥 처방은 불가능하였다. 한 달 가량의 외래치료로 소양감은 주간 3-4회, 야간에는 거의 소실되었는데 素症의 濕疹이 다소 심해지고 삼출물이 생기는 양상이 있어 다시 烏貝散을 처방하고 연고제도 하루 1-2회 바르게 되었다. 이후 濕疹이 가라앉고 침 치료만으로 발진과 소양감이 거의 소실된 상태로 치료를 종결하였다. 증례 1의 경우 침 치료를 꾸준히 한 가운데 엑기스제 투여는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香砂平胃散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여 지속적인 투여가 불가능하였다. 연

고제 역시 내원 이전부터 도포하던 것으로 연고를 도포하는 중에도 소양발진은 계속 심해졌으므로 치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증상의 호전은 침 치료의 작용이 가장 컸던 것으로 사료된다. 증례 1의 환자는 이 후 임신 기간동안 재발하지 않았고 출산 1주일 후 癢痒發疹이 全身으로 재발하였는데 기타 한약 등의 다른 치료를 가하지 않고 동일한 침 치료만으로 5일 만에 거의 호전되었다. 이것으로 다시 한 번 五行和鍼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신성 포진(Herpes Gestationis)은 이름과는 달리 Herpes virus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신 및 산후에 표피하수포를 형성하는 자가 면역성 피부질환으로 수포성 유천포창과 유사하기 때문에 임신성 천포창(Pemphigoid Gestationis)으로 불리기도 한다¹⁶⁾. 이 질환은 임신 어느 때나 발생 가능하며 병변은 보통 복부, 체간 및 사지에 분포하고 홍반성 두드러기성 구진과 판, 수포성 구진 및 수포를 보일 수 있는데 거의 항상 소양감이 동반되며 치료는 국소적 또는 전신 glucocorticoid치료를 하거나 보존적 치료만을 하기도 한다¹⁷⁾.

증례 2의 환자는 피부질환의 과거력이 없던 환자로, 임신 8주 정도부터 手足에 水疱性 發疹이 있으면서 소양감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본원 내원 당시 임신 11주째였다. local피부과의원과 산부인과의원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素症으로 가지고 있던 大便秘結이 임신 이후 심해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大便을 보는 것이 특징이었고, 癢疹의 양상이 濕潤한 水疱性이라는 것, 舌이 淡紅肥大

薄白苔, 脈弦滑한 특징이 있었다.

침 치료는 또한 五行和鍼法에 따라 比較脈診을 하여 木實金虛人으로 진단하였다. 본 환자는 兩手의 寸脈인 心脈과 肺脈을 비교하여 心脈이 크고 肺脈이 작고, 關脈의 肝脈과 脾脈을 비교하여 肝脈이 크고 脾脈이 작으며, 다음은 脾脈과 腎脈을 비교하여 脾脈이 腎脈보다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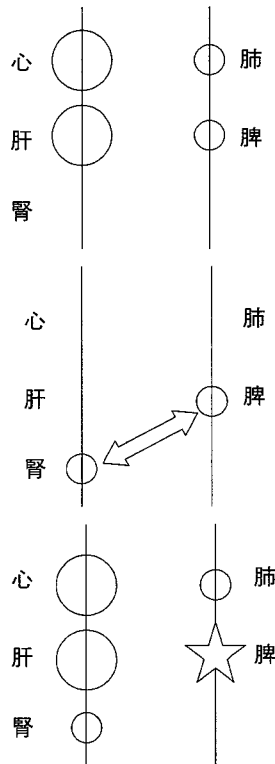


Fig. 2. 木實金虛人의 맥진도

그래서 좌측에는 木實金虛人의 基本穴인 陰谷(腎經의 水穴) 補, 少府(心經의 火穴) 瀉를, 우측에는 臨泣(膽經의 木穴) 補, 商陽(大腸經의 金穴) 瀉를 하였다. 우측의 혈자리는 相合이론에서 選穴할 수 있다. 즉, 木實金虛人에서는 肝實肺虛의 상태에서 肝과 夫婦相合을 이루는 大腸이 역시 實하므로 결국 天干相合

을 이루는 肺와 大腸은 虛實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肝과 天干相合을 이루는 膽 역시 虛해지므로 膽經의 木穴인 臨泣을 補하고 大腸經의 金穴인 商陽을 瀉하게 된 것이다. 少府의 輔助穴로서 勞宮(心包經의 火穴) 瀉를 하였다.

한약은 烏貝散 엑스제를 內服하고 大黃粉末을 外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치료는 침과 함께 거의 치료기간 내내 병행하였는데 烏貝散 복용은 증례 2의 포진 양상이 증례 1보다 濕性 성질이 뚜렷하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大黃은 瀉熱毒, 破積滯, 行瘀血하는 효능이 있어 實熱便秘, 煩燥, 食積痞滿 등에 內服하고 口瘡糜爛, 丹毒으로 온몸이 빨갱게 부은 것, 凍傷, 火傷 등에 가루 내어 물 혹은 식초에 개어서 바르는 약재이다¹³⁾. 外治法은 방법이 간편하며 사용이 편리하고 효과가 양호하여, 內服藥을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약물을 투여하여도 毒作用이나 부작용의 유발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久病 혹은 大病으로 극도로 體虛하거나 脾胃의 運化機能障로 攻補하는 약물의 투여가 어렵거나 한약을 거부하는 환자나 약물의 투여로 효과를 보기 곤란한 證인 경우의 환자에게 內治法과는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다¹⁸⁾. 증례 2는 증례 1에 비해 病證이 복잡하지 않고 疱疹의 樣相과 신체 전반적 특성이 濕濁을 끼고 있는 상태여서 침 치료와 함께 烏貝散의 복용, 大黃粉末의 外用이 효과적으로 작용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치료가 가능하였다.

임신 중 피부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에

관한 논문으로는 妊娠性 類天疱瘡 양상의 妊娠皮膚症에 대한 정¹⁹⁾의 치험례와 급성기 피부염에 四物湯加味方과 dressing을 이용한 김²⁰⁾의 치험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 이번 논문은 五行和鍼法이라는 공통적인 鍼法과 엑스제를 이용하여 치료한 차이가 있다.

임산부는 약물복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일반인에 비해 한약복용이 신중한 편이다. 이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치료기침 치료와 미리 제조되어 있는 보험엑스제를 이용한 치료이다. 상기 2례의 임신 중 피부질환 환자는 湯劑韓藥 복용과 입원치료가 아닌, 五行和鍼法과 엑스제를 이용한 외래 치료만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호전된 것에 의의가 있으나 적은 수의 증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임신 중 피부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 연구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結 論

동서한방병원에 내원한 임신 중 피부질환 환자 2례에 대하여 시행한 치료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두 증례에서 五行和鍼法과 한약 복합 엑스제를 이용하여 임신 중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유효한 효과가 있었다.
2. 증례 1에서는 素症의 濕疹과 임신 후 발생한 瘙癢發疹이 혼합된 양상으로, 烏貝散과 香砂平胃散의 엑스제를 보조 치료로 五行和鍼法 上 火實水虛人 으로 진단하여 치료하여 유의성 있는 효과를 얻었다.
3. 증례 2에서는 手足疱疹과 신체상태가 濕性 경향으로 烏貝散의 內服, 大黃粉

末의 外用, 五行和鍼法 上 木實金虛人
으로 진단하여 치료하여 유의성 있는
효과를 얻었다.

4. 임신 중 피부질환 두 증례를 치료한
결과 한방 치료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부질환 뿐만이 아니라
임신 중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증상에
대한 한방부인과적 접근과 연구가 시
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투 고 일 : 2007년 01월 24일

□ 심 사 일 : 2007년 02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2월 06일

參 考 文 獻

1. 한의부인과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한의
부인과학회. 서울: 도서출판 정림.
2001: 19-300
2. 권오상 등. 임신중의 생리적 피부 변
화에 대한 임상적 관찰. 대한피부과학
회. 1997; 35(5): 902-908
3. 윤성도. 임신과 피부. 한국모자보건학
회지. 2000; 4(1): 117-128
4. 류지윤. 외과·피부과의 변증논치. 서
울: 서원당. 1987; 209-221
5. 池鮮英 編著. 東醫皮膚科學. 대구: 一
中社. 1996; 13-19
6. 김성진 등. 임신 소양성 팽진양 구진
및 판 1예. 대한산부회지. 1994;
37(12): 2464-2467
7. 박천욱 등. PUPPP 1예. 대한피부과학
회지. 1986; 24(3): 403-405
8. 최인철 등. 임신말기에 발생한
PUPPP 증후군 1예. 대한산부회지.
1994; 37(3): 582-585
9. 나효석 등. 五行和鍼法을 이용한 임신
중 중둔근 약화 환자 치험 1례. 대한
한방부인과학회지. 2005; 18(4):
211-218
10. 최승훈 譯. 難經入門. 서울: 법인문화
사. 1998; 330-334
11. 安榮基 編著.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
社. 2000; 116-117
12. 脾系內科學教授共著. 脾系內科學. 서
울: 도서출판 동우. 2000; 65-74, 390
13. 강소신의학원. 중약대사전. 서울: 도
서출판 정담. 1998; 6086-6092,
1324-1334
14.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室 共編著.
本草學. 서울: 도서출판 永林社.
1999; 386-387
15. 이상근. 콧 속에 건강이 보인다. 서
울: 시공사. 2003; 14-17
16.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편저. 피부과학. 서울: 백왕사. 1994;
196-211
17. 대한내과학회. Harrison's 내과학. 서
울: 도서출판 MIP. 2003; 336-337
18. 宋炳基, 李京燮, 林垠美. 妊娠惡阻의
外治法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
지. 1996; 17(1): 447-462
19. 정선형 등. 妊娠性 類天庖瘡 양상의
妊娠皮風症 환자 治驗 1例. 대한한방
부인과학회지. 2002; 15(3): 172-180
20. 金銀淑 등. 임신중 급성기 피부염 환
자 1례에 대한 임상보고. 대한한방부
인과학회지. 2005; 18(4): 195-202